



광주시 북구 두암3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설맞이 합동차레'에 참석한 100여 명의 새터민·실향민·이주여성·독거노인들이 합동차레를 지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강진 성화대 또... 교수 9명 파면

### 교수협 "교비 횡령 설립자 퇴진 주장에 보복"

지난해 시국선언 참가 교수 무더기 파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진 성화대학이 올해 또다시 10명이 넘는 교수를 파면하거나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성화대학교 교수 등에 따르면 대학측은 지난 5일 최모 교수 등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9명을 파면하고 3명을 감봉하는 등 무더기 징계했다.

대학 관계자는 "논문표절과 복무 규정 위반, 정치적 집단 가입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며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파면에 해당 교수들은 학교 설립자 엄벌을 주장한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쫓아내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징계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곤 교수협의회 소속이거나 최근 탈퇴했던 사람이며 1.2차 징계자를 포함해 파면 조치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는 20명에 가깝다.

이 대학은 지난해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6명을 파면한 이후, 8월에도 3명을 추가 파면했다.

더욱이 1.2차 징계 교수 모두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됐으나 지난달 징계위를 다시 열어 재파면(1차 징계자)했거나 오는 18일 재징계(2차 징계자)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소청심사위가 절차 미흡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재 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화대학은 지난 2008년 전체 교원 90여명중 절반 가량이 참여한 교수협의회가 결성돼 투명한 학교 운영 등을 주장하며 전 설립자이자 총장인 이모씨와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수석원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소속 모 교수는 "대학측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교수에 대해 각종 구실을 붙여 파면 또는 징계하고 있으며, 파면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복직 판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이 총장이 수석원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 전남 영재교육원 8곳

### 전담 강사 16명 공모

전남도교육청이 목포와 여수 등 도내 8개 영재교육원에 근무할 전담강사를 공모한다.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해남, 고흥, 화순 등이며 교육청별로 2명씩 모두 16명이다.

중등수학, 과학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간제 교사 대우를 받으며 방과 후 수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다. 교과와 특별활동 지도, 영재교육원 시설·기자재 관리,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을 맡는다.

16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접수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2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마음은 고향·가족과 함께...”

### 새터민·실향민·이주여성 등 100여명 '설 합동차레'

#### 광주 두암3동 주민센터

“비록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설을 쇠지는 못하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차레를 지낼 수 있어 기쁩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 북구 두암3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설이지만 마음오로만 고향에 가야하는 새터민과 실향민, 이주여성, 독거노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차레를 지내며 가족, 친지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회상했다.

이날 82.6㎡ 크기의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 100여명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1년중 가장 큰 명절을 먼 타향에서 지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워낙 큰 탓인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분위기가 무거웠다.

하지만 막상 차레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의 표정은 금세 밝아졌다. 저마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연은 다르지만 고향을 그리워하고 새해 소원을 비는 마음 만은 한결같았다. 이날 차레상에는 떡국·산적·나물·

떡·한과·약과 등 20여 가지 음식이 올랐다. '합동 차레'를 위해 '북구 두암3동주민센터'와 '두암동 청년회', '두암3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이다.

참석자들은 주회 측이 나눠준 가로 5cm, 세로 15cm 크기의 종이에 지방(紙榜)을 써서 차레상에 올린 뒤 차례로 절을 올렸다. 침묵 속에서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안부와 자신의 새로운 사회 정착을 비는 마음을 담아 차례상에 머리를 조아렸다.

새터민 이수희(가명·여·39)씨는 차례상 앞에서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사부곡(思父曲)'을 쏟아냈다. 남북 정진이 고향인 이씨는 12년 전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씨는 “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국경을 넘어온 것도 죄스러운데, 이제는 소식조차 알 길이 없어 역장이 무너진다”며 연신 눈물을 흘려냈다.

몽골 출신 이주여성 계별토아(26·북구 두암동)씨는 남편과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 시댁 식구들의 건강을

빌었다.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청년회 회원인 남편이 차례상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묻어났다.

결혼 2년차인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차레를 지내면서 한때나마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씨는 “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국경을 넘어온 것도 죄스러운데, 이제는 소식조차 알 길이 없어 역장이 무너진다”며 연신 눈물을 흘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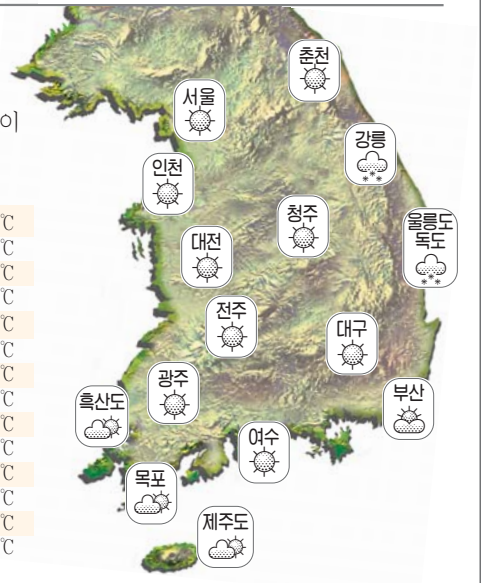
두암동 청년회 박인성(44) 회장은 “회원들이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씩 정성을 모아 행사를 마련했다”며 “고향에서 명절을 쇠지 못하는 이들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8분 해질 18시 15분 달돋이 07시 59분 달질 20시 19분

## 풍랑주의보

새벽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4/3℃
목포	흐린 맑음	-4/3℃
여수	구름 조금	-2/5℃
완도	구름 조금	-3/3℃
구례	구름 조금	-6/6℃
해남	구름 조금	-4/4℃
장흥	구름 조금	-4/6℃
고흥	구름 조금	-4/6℃
순천	구름 조금	-3/6℃
영광	구름 조금	-5/2℃
진도	구름 조금	-3/3℃
전주	구름 조금	-6/3℃
남원	구름 조금	-7/3℃
목성도	흐린 맑음	0/2℃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목포	03:20	08:3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0:28	04: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22:37	16: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4/6	-2/4	-3/7	-2/8	-1/10	1/10

## 오늘 영하 8도... 내일 밤부터 눈

화순과 담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16일 광주·전남은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다. 17일 밤부터는 추위와 함께 눈도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은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영광과 함평 등 서해안 지방에는 오전 한때 흐리고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15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2도로 전날보다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종일 춥겠다. 17일 광주·전남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 오전까지 눈이 계속되다가 낮부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앙파크호텔

## 2010. 2. 1. 스테이크하우스오픈

• 장소: 신앙파크호텔 6F 포스트아비  
• 영업시간: 07:00 AM - 02:00 AM  
스테이크하우스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행사기간: 2010년 2월 28일까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 신앙파크호텔 웨딩홀

풍광이 좋고 수미한 웨딩홀, 확실한 음식, 최고의 서비스!  
특급호텔의 차별적이고 여유있는 결혼식을 약속합니다.

☎ 상담 문의 700-228-8000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가스타·세기보청기

1588-8438 / 098-222-1110

01531-0388